연예뉴스 HOT 5

이정재·김남길,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이정재

배우 이정재, 김남길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스타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0일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가 한국 입국 후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 74회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영화 '헌트'를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가 1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화 '보호자'로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김남길도 16일 귀국 후 받은 관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8월 영화산업 매출액 1523억원…7월보다 감소

국내 영화산업 매출액이 여름 대작의 연이은 개봉에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8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매출액은 1523억 원으로 2019년 같은 달의 72.9%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관객수는 1495만 명으로 2019년의 60.3% 수준이었다. 8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수도 전월 대비 각각 10.7%(182억 원), 8.2%(132만 명) 줄었다. 영화계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8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수가 7월보다 감소한 것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코카앤버터, 퍼포먼스 음원 '미데야' 10월 공개


코카앤버터

댄스 크루 코카앤버터가 퍼포먼스 음원을 발표한다. 20일 MLD엔터테인먼트는 "코카앤버터가 10월 6일 퍼포먼스 음원 '미데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데야'는 자메이카에서 쓰는 언어인 자메이카 파트와로 '난 괜찮아'라는 의미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음악과 춤에 집중한 댄스 음악의 근본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멤버 전원이 안무와 보컬에 참여했고, 래퍼 쿤타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코카앤버터는 리헤이, 가가, 비키, 제트썬 등이 속한 댄스 크루로 지난해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다.

강태오 현역 입대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다"


강태오

배우 강태오가 20일 현역으로 입대하며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소 직전 개인 SNS를 통해 "많은 분의 응원과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013년 웹드라마 '방과 후 복불복'으로 데뷔한 강태오는 최근 출연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인기를 모았다.

김홍선 감독, 美 대형 에이전시 WME와 계약

영화 '기술자들', '변신', '늑대사냥' 등을 만든 김홍선 감독이 미국 대형 에이전시 WME와 계약했다. '늑대사냥'의 배급사 더콘텐츠온은 20일 "김홍선 감독이 WME와 계약했다"며 "한국 감독이 계약한 것은 2014년 봉준호 감독 이후 8년만"이라고 밝혔다. WME에는 봉 감독뿐 아니라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등 할리우드 유명 감독도 소속돼 있다. 김 감독은 필리핀에서 잡아들인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호송하는 배 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그린 '늑대사냥'을 21일 공개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 조우진



광기어린 연기로 존재감 누리꾼들 "갓우진" 환호

카리스마 연기에 후반 반전까지
명장면 모음 하루 만에 106만뷰
캐릭터 설정 영상도 뜨거운 반응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속 조우진

신의 한수다.

배우 조우진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서 주연 하정우와 황정민 못지않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호평 받고 있다. 드라마를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끌어올린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힌다.

조우진은 극중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왕 황정민의 심복 역을 연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황정민의 라이벌이자 장첸이 이끄는 중국 조직을 배신한 조선족 출신으로, 유창한 중국어 대사와 함께 황정민에게 절대 충성하는 광기 어린 수하의 모습을 연기했다. 후반부에는 가장 큰 반전을 선사한다.

이에 그의 존재감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극중 가장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줬다"면서 "다층적인 캐릭터를 손짓이나 눈빛 등으로 세밀히 표현한 것은 물론, 절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연기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극찬했다.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 SNS상에는 조우진을 "갓(god)우진"이라 부르며 그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극중 조우진의 분량만 편집한 영상도 화제다. '조우진의 미친 연기 명장면 한방에 몰아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18일 공개돼 하루 만에 106만 뷰를 돌파했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수리남'의 스핀오프 시리즈를 만들어달라는 누리꾼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수리남' 연출자 윤종빈 감독은 이에 대해 "촬영현장에서 배우들끼리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은 있다. 하지만 실현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감독은 넷플릭스가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드라마에는 담기지 않은 조우진 캐릭터의 탄생부터 가족관계, 학창시절, 군 복무 시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속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배우 조우진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BTS 대체복무 탄력 받나? 병역법 개정안 발의

"문화훈장 받은 예술인 길 열어줘야"
여론조사 61% 대체복무 찬성 눈길


방탄소년단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2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2018년 한류 공로 등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성취라는 점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인 등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의 입대가 임박한 지금이 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에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1992년생인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모든 멤버들이 내년 초부터 잇따라 군 복무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인정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돌아온 남궁민, '천원짜리 변호사'도 대박칠까

'스토브리그' 등 2년 연속 연기대상
드라마 23일 첫방…시청률 궁금증


남궁민

'대상 배우' 남궁민이 돌아온다.

23일 첫 방송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새 무대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SBS '스토브리그'와 MBC '검은 태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연기대상을 거머쥔 그가 새 주연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연말 대상 후보에 도전할 태세다.

남궁민은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단돈 1000원을 수임료로 받고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천지훈 변호사를 연기한다. 화려한 패턴이 박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설 만큼 엉뚱하지만, 재력가가 제안하는 고액의 수임료를 거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사건을 맡는 정의로운 캐릭터다. 대형 로펌 회사 대표의 손녀인 김지은을 시보로 들여 각종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다.

앞서 2017년 KBS 2TV '김과장'부터 '검은태양'까지 매해 10%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주연드라마들을 내놓으면서 이번 시청률 성과에도 방송가 안팎의 기대도 쏠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조사회사 피앰아이퍼블릭이 발표한 하반기 방영 예정작 관련 설문조사에서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무려 40.2%가 하반기 드라마 남자 주연 중 가장 기대되는 배우로 남궁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드라마가 법정 소재, 평범한 시민들을 도와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 등 안방극장의 인기 요소들을 갖춰 시청률 흥행의 전망을 밝힌다. 최근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MBC '빅마우스' 등이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그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천원짜리 변호사'도 해외 시청자를 겨냥해 방송과 동시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로 공개한다.

아직 첫 방송도 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종영 시점이 연기대상이 열리는 연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시청률 성과에 따라 남궁민이 또다시 대상 후보에 오를 것이란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남궁민은 제작진을 통해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코믹함과 진솔한 감동 등이 어우러진 드라마가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그는 20일 오후 열리는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시청자에 직접 드라마를 소개하기로 했으나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행사를 취소했다. SBS는 "23일 첫 방송 이후 논의를 거쳐 별도의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